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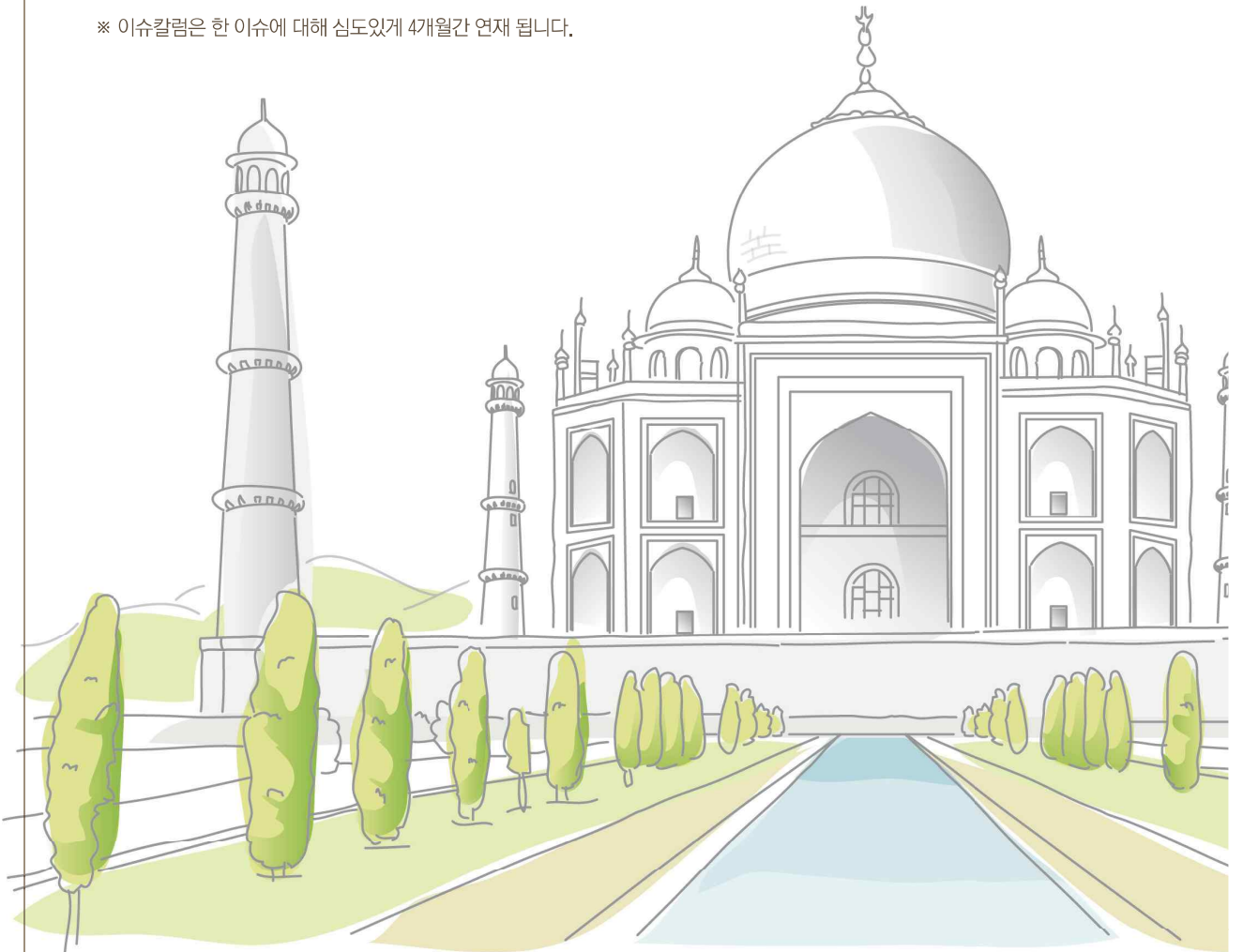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01 한국의 이슬람

유해석 (FIM국제선교회 대표)

깊이 들여다 보는. 이슬람 읽기

01. 한국의 이슬람
02.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03. 이슬람의 믿음
04. 기독교에 들어온 이슬람

※ 이슈칼럼은 한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4개월간 연재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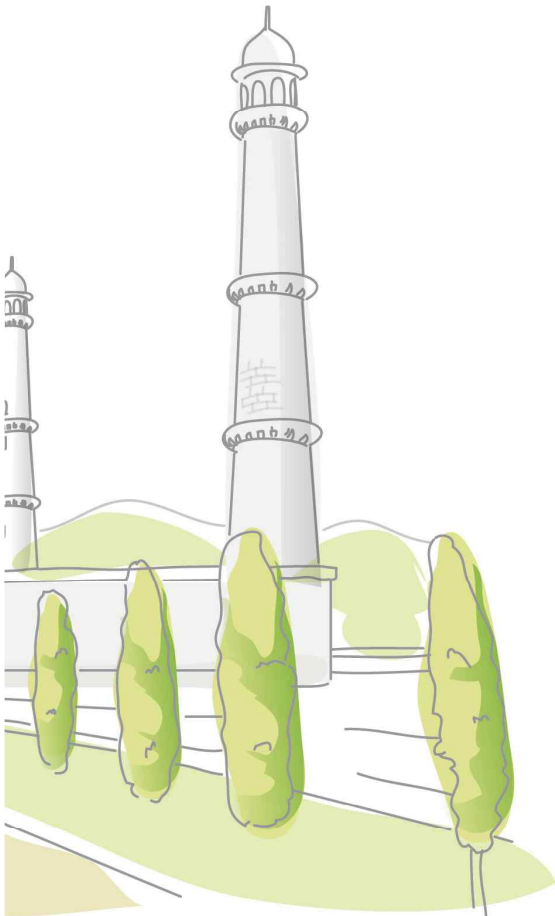
필자는 23년 전에 한국을 떠나 중동과 영국에서 살았다. 중동 인구의 90%가 무슬림이며, 영국은 전 국민의 5%가 무슬림으로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다. 요즘은 한국에서 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을 보는 것이 중동이나 영국처럼 익숙해져 가고 있다. 강남 CBMC(기독교실업인회)에 강의하러 갔다가 젊은 기업인으로부터 기업인들이 많은 테헤란로에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이 베스트셀러로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국의 전 총리인 토니 블레어는 아랍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꾸란을 두 번 읽었다며 대화의 문을 연다고 한다.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이슬람권은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4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교역 규모가 커지면 두 나라 사이에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약 3만 6천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한국에 언제 들어왔을까?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처음으로 아랍 문명과 접촉하였고, 소수의 아랍인들이 신라와 무역을 통한 교류를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백 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규모 무슬림 상단이 방한하곤 했는데, 이것은 이미 고려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역관계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아랍 상인들은 고려에 거주하는 동안 조정에서 거행되는 주요 행사에 외국 사절들과 함께 참석할 정도로 환영을 받았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은 상류층에서 환대를 받았고 상류 문화의 유행을 주도하였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는 움마(umma)(이슬람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하나의 사회·경제적 세력으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고려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많은 무슬림이 고려에 귀화하여 고려 여인과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무슬림들의 종교 행위가 보장되었다. 회회인들(이슬람을 대표하는 단어)은 공식적인 조하(朝賀, 조정에 나아가 임금에게 하례하는 일) 자리에 불교의 승려들과 함께 등장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이 불교와 이슬람을 통솔하고 있으며, 이슬람 역시 조정의 인정을 받는 공식적인 종교였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문물들과 기술들을 교류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다와(dawa, 이슬람포교활동)를 펼쳤으나, 주로 조정과 연관되어 있어 대중 속에 정착되지도, 자생력을 갖지도 못했으며, 조선의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500년의 공백기를 갖게 된다.



한국 이슬람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확산되어 갔으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고려나 조선, 아랍 문명을 이어주던 원나라가 멸망하고 한족 중심으로 건국된 명나라의 대외관계 축소정책, 뒤이은 청나라의 무슬림 탄압 정책에 따라 조선은 무슬림과의 교류가 단절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유교 문화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주자학의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학풍이 힘을 얻으면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대외관계의 성향을 갖게 되었고 이슬람 문명을 거부하게 되었다. 또한 외래문화가 한국에 동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세종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막고 배척하였는데, 세종의 칙령 이후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슬람 예식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긴 공백이 지나고 19세기에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국내에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1920-1940년 사이에는 200-250명 정도의 투르크인들이 한반도 전역으로 이주하여 움마를 이루었다.

국내에 거주했던 투르크계 무슬림들은 포목점과 양복점을 경영하면서 상업과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서울에 이슬람 학교를 세우고 무슬림 자녀들을 교육하는 등 종교·문화적인 활동을 지속했다. 투르크계 무슬림들은 당시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의 고위 간부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추구하면서 무역 및 상업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했으며 한국에 움마를 형성하는 것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이 독립하면서 국내에 있던 투르크계 무슬림들은 다시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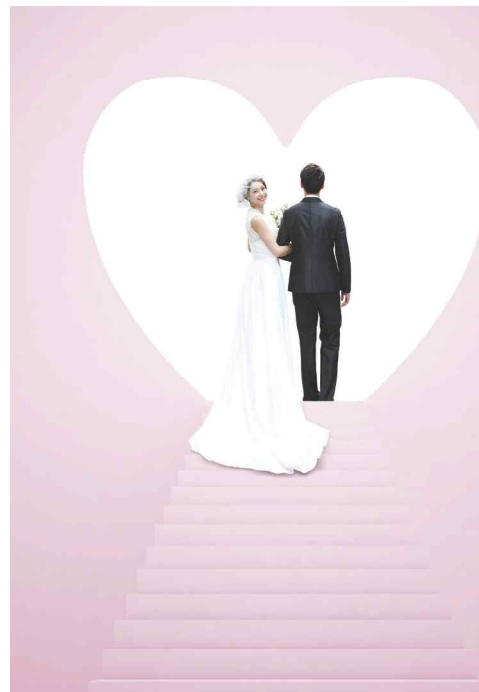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터키는 유엔군 소속으로 여단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여 한국을 도왔는데, 이후로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조직되면서 이슬람에서의 한국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국 이슬람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확산되어 갔으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이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 22.8%인 약 16억이 무슬림이다. 1930년에는 2억 3백만 명이던 것이 지금은 약 16억이 되었다. 이렇듯 이슬람이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다산이다. 영국의 무슬림 여성은 평균 6-7명의 자녀를 낳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평균 6명을 낳는다고 한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마지막 설교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Abu Dawood, Nisai and Hakim)고 하였다. 또한 꾸란은 독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너희들 가운데 독신자는 결혼할 지어다.”(꾸란 24:32) 따라서 모든 무슬림 여성이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써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꾸란의 명령(꾸란 4:3)에 따라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부다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명시된 네 명의 부인 외에 ‘오른손이 소유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하녀들과의 관계는 산아제한이 없는 이슬람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들 자녀들은 나면서부터 무슬림이 되어 이슬람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둘째, 결혼이다.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해야 하지만(꾸란 2:221), 무슬림 남성은 무슬림 여성, 유대인 여성,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꾸란 5:5).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때에는 이슬람식 신앙고백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슬람법에 의하여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되며 양육권도 아버지가 갖는다. 영국에서는 무슬림 남자와 결혼한 여성이 이혼 후 이슬람권으로 공부하러 간 자녀를 찾으러 갔다가 유괴범으로 체포되어 현지 감옥에 갇히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때에는 이슬람식 신앙고백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이슬람법에 의하여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되며 양육권도 아버지가 갖는다.

셋째, 개종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메카에서 시작된 이슬람 군대가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를 점령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등 시민으로 댄미(Dhimmi)라 불리며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은 불평등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발적인 개종이 늘고 있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 재키 스미스는 2009년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만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그 수가 4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무슬림들의 전투적인 포교 활동 외에도, 이슬람 교리가 기독교보다 쉽다 하여, 또 이슬람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개종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는 한류, 경제 교류, 관광 목적 외에 선교하기 위해 이슬람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다. 무슬림들에게 한국은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고 정착하고 싶은 나라였다. 9세기의 인물이며 아랍인인 이븐 후르다드비(Ibn Khurdadhib)는 자신의 저서인 『도로들 및 왕국들 안내서』에서 신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중국의 맨 끝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금이 풍부하다. 이슬람이 이 나라에 상륙하면 그곳의 아름다움에 끌려 영구히 정착하고 떠나려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했던 12세기의 아랍인인 알이드리시(al-Idrisi)는 『먼 나라를 종합할 꿈을 가진 자들의 산보』에서 이렇게 저술하고 있다. “그곳(신라)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정착하여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곳이 매우 풍족하고 이로운 것이 많은데 있다. 그 가운데서도 금은 너무나 흔해 그곳 주민들은 개의 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테도 금으로 만든다.”

이제는 한류, 경제 교류, 관광 목적 외에 선교하기 위해 이슬람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말 정부는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2020년에는 35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혹자는 중동과 한국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슬람화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2억 4천만),



파키스탄(1억 9천만), 방글라데시(1억 6천만)이며 인도의 무슬림 인구 또한 1억 6천만 명이다. 이들 국가 모두 한국과 인접해 있다.

지난해에 발간된 선교타임즈 8월호에 따르면, 한국 내에 있는 무슬림 인구가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2011년 12월 말 외국인 무슬림으로 한국에 거하는 이들은 109,220명이었으며 한국인 무슬림은 71,000명이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무슬림으로 개종하였는데, 1년에 약 5천 명의 한국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순 교수는 2013년 6월 법무부 통계를 근거로 한국인과 결혼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국제결혼 비자 체류자'를 14만 8,746명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중 주요 12개 이슬람 국가 출신이 모두 4,935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요 12개 이슬람 국가만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OIC(이슬람회의기구) 회원국은 57개국에 달하며, 회원국에는 속하지 않지만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무슬림인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온 무슬림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한 내국인들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국내 무슬림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국가들은 출산율이 저조하여 현재는 평균 1~2명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무슬림 가정의 출산율은 국내 일반 가정의 출산율보다 높기 때문에 4,935명의 무슬림 가정에서 자녀들을 출산하기 시작하면 국내 무슬림들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슬람권 유학생들도 급증하고 있다. 출입국 외 국민정책 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어 연수와 일반 연수를 제외하고 2005년 1,214명에서 2009년 5월 2,802명으로 2005년 대비 232%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유해석 총신대학교를 졸업, 영국 웨일즈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 선교사, OM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990년부터 이집트 빈민가에서 사역하였으며 지금은 영국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FIM국제선교회 대표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였으며, 한국선교협의회(KWMA) 실행위원과 유럽 코스타 강사 및 선교분과장, CTS 기독교 TV 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토마스 목시전』, 『만화 이슬람』 등이 있다.

2005년에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발행한 한국 이슬람 50년 자료집에 나타난 한국의 이슬람화 선교 전략은 이슬람 사원 건립, 국제 이슬람 학교 설립, 이슬람 문화센터 설립, 기관의 새로운 번역 추진, 이슬람 대학 건립, 이슬람 관련서적 출판 등이다.

국내의 주요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만화 이슬람』, 『무함마드와 이슬람 제국』, 『이슬람의 모든 것』, 『이슬람이 알고 싶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코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슬람에서 나온 책들은 이슬람의 어두운 부분은 가리고 기독교와 유사한 내용을 담아 이슬람의 알라를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이슬람 홍보물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에서 이슬람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슬람은 곧 기독교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를 배교자이며 이단자로 간주하였으며, 마틴 루터 역시 이슬람이 얼마나 해로운 종교인지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에 확산되어 가는 이슬람에 대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알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슬람을 쉽게 이해하기
《만화 이슬람》**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의 모든 것을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